



예능대세 '꽃노년'

백일섭 싱글라이프 '살림하는 남자들'
윤여정·신구 휴양지식 식당 운영 '윤식당'

예능 프로그램에서 '할매' '할배'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백일섭(73), 윤여정(70), 신구(81), 김용건(71)...

평생 연기만 해온 이들의 노련함과 자신감은 요즘 젊은 연예인도 두려워하는 관찰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짝 피어 나고 있다.

이들을 캐스팅한 제작진의 안목이 놀랍고, 24시간 카메라가 켜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이들의 능수능란함은 더욱 놀랍다.

◇백일섭·김용건...싱글라이프 즐기는 솔직한 할배들 =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은 지난 2월22일 첫방송을 한 이래 연일 백일섭 덕분에 화제를 모은다.

2013~2014년 tvN '꽃보다 할배'를 통해 이미 관찰예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실제 캐릭터를 보여준 백일섭이지만 '살림하는 남자들'은 또 다르게 다가왔다. 이순재, 박근형, 신구 등과 어울려 다녔던 '꽃보다 할배'와 달리,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백일섭은 오롯이 자신만의 일상과 사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그가 결혼 40여년 만에 '졸혼(卒婚)'을 선택했다는 것이 화제성을 높인다. '살림하는 남자들'은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한 백일섭이 애견을 애지중지하면서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일상으로 방점을 찍는다.

백일섭은 무엇보다 놀라운 정도로 솔직하다. 첫방송에서 "서로 예의도 지켜가면서 정답게 살면 같이 사는 게 좋지"라고 말해 성격상 이유로 아내와 따로 살고 있음을 내비쳤던 그는 딸과의 불편한 관계, 이복동생들과의 관계 등도 카메라에 노출했다.

김용건은 2013년 7월부터 MBC TV '나혼자 산다'에 출연 중이다. 현재는 드문드문 게스트 형식으로 등장하지만, 한동안 일상을 공개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견인했고 지금껏 출연진의 '대부' 역할을 맡고 있다.

톱스타 허정우의 아버지이자, 그 자신 유명배우인 김용건은 20여년 전 이혼한 싱글남으로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아들과 스케줄이 맞지 않아 생일날 혼자서 식당을 찾아 밥을 먹고 케이크를 손수 사 들고 귀가하거나, 요리 학원을 다니고,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등의 모습이

'쿨'하게 조망됐다. 드라마에서 멋쟁이 신사 역을 주로 맡아온 김용건은 '나혼자 산다'에서 실제 그의 삶도 '로맨스 그레이'와 같음을 보여주며 흥미를 끌었다.

◇윤여정·신구...남녀노소의 꿈에 불 지르다 = 윤여정과 신구는 tvN '윤식당'을 통해 시청자의 꿈에 불을 질렀다. 무릎에서 칼슘이 쑥 빠져나간 나이, 대부분은 '무위'의 고통에 허우적대지만 '윤식당' 속 윤여정과 신구는 아니다. 멋진 이국 휴양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소박한 일상으로 시청자를 홀린다.

비록 살점이 고, 열흘남짓 짧은 기간을 촬영한 예능이지만 '윤식당' 속 윤여정과 신구의 모습은 남녀노소의 보편적인 꿈을 자극했다. 이보다 한참 어린 대선주자들도 2시간 스태프 토론에 힘겨움을 호소하는 판에 식당 주방과 서빙을 책임지며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윤여정과 신구의 노고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영어로 상대하며 일상을 탈출한 이색 체험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시청하는 남녀노소를 흐뭇하게 한다.

◇연료와 경험으로 무장한 배우의 힘, 예능에서도 통째 = 이들 배우의 저력은 관찰 예능뿐 아니라 토크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신구와 백일섭은 최근 잇따라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웃음 폭탄'을 터뜨리며 젊은 스타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신구는 쌍꺼풀 수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덩실덩실 탈춤을 춰고, MC들의 허를 찌르는 트러리로 '뽕구'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백일섭은 "내가 옛날에는 박근형보다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많아 거리를 쓸고 다닌다는 뜻의 '명동 빗자루'라 불렸다" "내가 배우 김수현을 데뷔시켰다" 등 호랑이

답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맛나게 털어놓았다. 청춘스타의 전유물인 줄로만 알았던 예능 프로그램이 이들 어른신으로 인해 한층 풍성해진 것이다.

'살림하는 남자들'의 조연아 KBS 프로듀서는 "백일섭 씨의 경우도 섭외까지는 공을 들여야 했지만 일단 출연하고 나서는 제작진이 생각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오는 등 방송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다"며 "그분들이 가진 방송 노하우는 제작진의 노하우가 일천하고도 느껴질 정도로 깊이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아이유 10색 노래 담은 '팔레트' 발표

지드래곤·오혁 등 음원 강자들 피쳐링

어느새 '믿고 듣는' 음악 브랜드가 됐다. 2008년 15세에 데뷔해 어느덧 10년 차를 맞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4)다. 악플러들의 공격에도, '제제'의 노래말이 소셜 속 5살 아이 제제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도, 장기하와의 열애와 결별 소식에도 흔들림 없이 발표곡마다 음원차트 정상을 찍었다.

정규 4집 '팔레트'(Palette) 출시에 앞서 선공개한 두 곡 '밤편지'와 오혁과의 듀엣곡 '사랑이 잘'도 잇달아 음원차트 정상을 밟았다.

4집 발매일인 21일신한카드판스퀘어라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아이유는 "선공개로 낸 음원이 이렇게 사랑받을지 몰랐다.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다. '밤편지'가 활동 없이 음악 방송 1위를 해 뭇 듯이 기뻐"고 소감을 밝혔다.

아이유가 프로듀싱한 4집에 '팔레트'란 제목을 붙인 건 특정 장르나 스타일에 제한받지 않고 다채로운 10개의 트랙을 채웠다는 의미이다.

아이유는 "팔레트가 여러 색깔을 담고 있다"며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보다 팔레트에 더 관심이 가고 예뻐더라. 그래서 팔레트 자체가 도구이면서 동시에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의 강점으로는 "어떤 앨범보다 곡이 좋다"라며 "스스로 참 마음에 들고, 자신도 있고, 많이들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한다. 애정이 많이 간다"고 강조했다.

수곡곡의 다양성을 위해 차트 파괴력이 있는 피쳐링 단군과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작곡가들이 힘을 보탤었다. 타이틀곡 '팔레트'에는 빅뱅의 지드래곤이 피쳐링과 랩 메이킹에 가세했다. 한국 나이로 스물다섯인 아이유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포근한 신스 사운드로 풀어낸 곡으로 지드래곤의 개성 있는 랩이 돋보인다. 아이유와 유명 작사가 김이나가 함께 가사를 쓴 또 다른 타이틀곡 '이름에게'는 웅장한 현악기 사운드를 뚫고 나오는 아이유의 목소리가 매력인 팝 발라드이다.

또 1980년대 밴드 어떤날 출신인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그렇게 사랑'을 작사·작곡했고, 감각적인 사운드의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캠핑'을 만들었다.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 손성제는 '마침표'를, 신세대 아르앤디비(R&B) 뮤지션 샘김은 '이런 엔딩'을 작곡했다.

'이런 엔딩'의 뮤직비디오에는 아이유와 드라마 '드림하이', '프로듀사'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김수현이 우정 출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이들 쓰리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울린 도적)(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크공감(재) 50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리치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끼 이슈를 말한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런 55 KBC특집토론 2017 대선 후보 민심을 잡아라
1	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5 빛고를 행복이카데미(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키즈 사이언스6(재) 55 파워배틀 외치카	55 닥터 365
2	55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더카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토 고맙습니다(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문재인 후보)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25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국민의당) 45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울린 도적)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완벽한 아내)	55 제 19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비초청	00 월화드라마 (깃속말) 10 초인가족 2017
11	00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비초청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12		35 비바 K리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순다열도의 대자연 수마트라>	09:4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스페셜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짜라! 마다가스카르 1부 바오바브의 땅 은하수를 품다>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기 췌	21:30 한국기행 <꽃피러 간다 1부 꽃대굴 가봤니?>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잔멸치조림과 잔멸치 달걀말이)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크 프라임 <백성의 물고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코코콩 3	22:45 엄마를 찾지마
07:30 로보가 풀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가칠남녀
07:45 출동! 슈퍼웬스	12:10 글로벌 가족정체기 -한국에 산다	16:30 두다다(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똥똥똥 유치원 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24:30 세계의 드라마 (다운연 예비)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리얼극장-행복(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15 용감한 소방서 레이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보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 (음 3월 28일 辛巳)

子	48년생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60년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72년생 길흉이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84년생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5, 01	午	42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54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해소되리라. 66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비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78년생 겸허 하라. 90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 더다. 행운의 숫자 : 82, 61
丑	49년생 잘못된 흐름이 보이니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61년생 절실한 필요로 했던 버를 취하는 기쁨이 보인다. 73년생 주권에 대응해야 하는 뜻이 다르다. 85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1, 80	未	43년생 절대로 놓치지 마라. 55년생 지속 가능하기는 하나 구태의연할 뿐이다. 67년생 기본 소식을 듣고 헛처가 튀어가리라. 79년생 주권에 치우치다면 손실이 대단히 크다. 91년생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6, 45
寅	50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62년생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해법이 도출되는 판세이다. 74년생 지금 나선다면 패배로 작용할 것이니 자중하지 않으면서도 아니 된다. 86년생 생 끝까지 조마조마할 것이나. 행운의 숫자 : 93, 98	申	44년생 진행이 원활해지고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56년생 그림의 미학을 인식해 보는 것도 괜찮다. 68년생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면 시간까지 소비하는 셈이다. 80년생 시작이 반이니 일단 착수하고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84, 22
卯	51년생 연연중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라. 63년생 집착하거나 감정적이라면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객관적이다. 75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87년생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겠다. 행운의 숫자 : 29, 43	酉	45년생 활동하기에 매우 수월한 상태이다. 57년생 일단, 조처해 나가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69년생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81년생 감수하고 있노라면 마지막이 반전되겠다. 행운의 숫자 : 10, 67
辰	52년생 가까이에서 있으면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궤를 달리하는 이가 보이니 예의 주의하라. 64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이 크게 비화할 수도 있다. 76년생 투쟁이 보이기 시작한다. 88년생 탄식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13, 73	戌	46년생 머지않아 곧 끝날 날이 보이니 차분히 기다리자. 58년생 굳이 남의 이목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70년생 과감하게 버려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82년생 궁극의 상황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64, 35
巳	53년생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판국을 전환 시킬만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65년생 말하지 않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지금 손대지 않으면 완전히 굳어지게 되어 있다. 89년생 크게 보아라. 행운의 숫자 : 05, 51	亥	47년생 가끔씩 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59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물거품이 되고야 말 것이다. 71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긍은 하되 동참하지 않으면 된다. 83년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높다. 행운의 숫자 : 81, 7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